

민주, 내년 지방선거 공천심사위 12월 구성

선거 준비 착수... '정책개발 순회 토론회' 광주서 시작

민주당이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3일 광주를 시작으로 '2014년 지방선거 정책개발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에 들어간다.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주요 정책 개발을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민심 청취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 공약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에는 선거운동 실행계획 등 지방선거 전략 수립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

고, 10·30 재·보선 이후부터는 지방선거 기획단을 확대·개편하는 등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어 선거 아젠다를 마련하고, 을 연말까지 지방선거 매뉴얼과 지방선거 중앙 및 광역·도별 공약집을 만들 계획이다. 도한, 11월부터 공천혁신(안) 마련 및 공개설명회를 열고, 경선 시행세칙 및 실행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12월부터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와 공천심사위

원회를 설치하는 등 공천기구를 구성하고 1월과 2월부터 본격적인 후보자 경선에 나선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전략으로 협력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민생복지 중심의 우수한 시·도정 성적표와 인지도를 앞세우고 광역단위 정책 이슈 개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한편, 이날 광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2014년 광주지역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김일태 전남대 교수의 광주발전 미래전략 기조발제에 이어

지방행정·지방균형발전·환경·문화정책 등

에 대한 분야별 발제가 이뤄졌다.

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광주시는 주력 산업(자동차, 정보가전, 광산업, 문화산업, 그린에너지)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고도 육성을 통해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지역맞춤형 선도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승조 지방선거기획단장(최고위원)과 입내현 광주시장당위원장, 이용섭 광주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및 당직자·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朴대통령 오늘 출국

러시아·베트남 순방



민화협 창립 15주년 기념 후원의 날



민화협 창립 15주년 '후원의 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15주년 기념 '후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전병현 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 한광록 국민대통합위원장, 김 남식 통일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한승원 칼럼

키고, 드디어 김정희를 제주도로 유배 보낸다. 그것은 세도정치를 주도한 안동 김씨들의 막힌 정국 풀어가기의 카드였다.

로마의 네로는 거대한 원형경기장에서 겹투사들로 하여금 결투를 하게 하고, 마차 경기를 하게 하고, 투우를 하게 했다. 미련한 대중들이 그 싸움을 보고 열광할 때 지배자들은 웃고 있었다.

김일성은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유엔의 참여로 실패로 돌아가자 남조선 노동당의 우두머리인 박현영을 숙청했다. 인민군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면 남조선 노동당원들이 봉기하여 합세할 것이므로 남쪽 정부는 무너질 것이고, 통일은 금방 이루질 것이라고 박현영이 말했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숙청의 이유였다.

그것은 전쟁 뒤의 민심 달래기용 카드였다. 김정일은 국장 정치를 했다. 영화와 서비스단을 이용하여 민족들을 열광하게 하고 김일성을 미친 듯 송배하게 했

카드섹션 이야기

귀를 사로잡아 돌려놓는다.

한 원시부족들은 해마다 말싸움 축제를 벌인다. 암내 낱 말 한 마리를 말뚝에 묶어놓고 수컷 말들로 하여금 암내를 맡고 흥분하게 하여 싸움을 붙이는 것이다. 수컷 말들은 상대 말을 물어뜯기도 하고 뒷발로 차기도 한다. 그들의 싸움은 어느 한쪽이 쓰러져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것을 구경하는 대중들은 미친 듯이 열광한다. 열광하는 민중들 위에서 지배자는 웃고 있는 것이다.

조선조 후기, 안동 김씨 세도정치가 시작된 것은 정조임금 사후 그의 아들인 11세의 순조임금이 왕위에 오른 직후이다.

순조임금은 장인이 김조준 일파의 세도에 주눅이 들려 아버지 정조임금을 닮은 똑똑한 19세의 효명세자로 하여금 대리정권을 하게 했다. 효명세자를 가르친 사람인 북학파인 주사 김정희였다.

효명세자는 안동 김씨 세도가들을 척 걸려고 들었다가 3년 만에 급사했다. 안동 김씨들은 효명세자를 살리기 위해 이 악, 저 악을 쓴 의원들을 탄핵했고, 그 탄핵 정국은 김정희를 죽이기 위한 것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먼저 김정희의 아버지 김노강을 탄핵하다가 순조임금의 반발에 부딪치자 자파인 윤상도를 탄핵하여 희생시

다.

일인 독재자 송배에 길 들어진 북한 영화인들의 그것과는 색다른 영화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신상옥 영화감독과 여배우 최은희를 납치하기도 했다. 부풀어 나는 통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화폐 교환 정책을 했는데, 새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외국 화폐가 나돌고 인심이 흥흉해지자 그는 그것을 책임지고 주도한 자를 처형하여 민심을 수습했다.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는 이런저런 카드들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다가, 정치적인 위기 때마다 한 가지씩을 터뜨리곤 했다. 해외 간첩단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들도 그러한 카드였다는 사실이 30년 후에 드러난 바 있다.

나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적기(赤旗歌) 부르기를 즐기고 북한의 핵무장을 친양하는 북한 주종세력을 돋기호테적인 천동별거승이들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 때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아왔고, 지식인들의 강력한 학제적 요구에 불린 국정원이 지난해 총선 때부터 종북 세력이라고 지탄받아온 자들을 내내 놔두었다가 바야흐로 내란음모혐의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한 개의 카드가 아니기를, 그 수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소설가>

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인위적 방류 거론

500억 투입 오염수 대책 확정

후쿠시마 주민, 도쿄전력 고발

세 나오미(廣瀬直己) 도쿄전력 사장 등 전·현직 간부 32명과 도쿄전력 법인에 대한 고발장을 후쿠시마현 경찰청에 제출했다.

무토 단장 등은 도쿄전력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에 배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대책을 취하지 않아 매일 300~400t의 오염수가 유출되도록 했다고 고발 이유를 적시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원자력재해대책본부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유출 사태에 대한 종합대응방침을 확정했다.

종합 대책에는 오염수 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 각료 회의를 구성하고, 그 아래 차관보급을 책임자로 하는 범정부 조직을 만드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소개했

다. 또 일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참사관급 정부 당국자를 상주시킬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춘 뒤 인위적으로 바다로 방류하는 방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다나카 순이치(田中俊一) 위원장은 2일 도쿄에서 진행된 외신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원자력 학회 사고조사 위원회(위원장 다나카 사토루 도쿄대 교수)도 2일 보고서 최종안에 삼중수소를 허락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등

해안권 개발 투자설명회

국도교통부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등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안권 개발사업 투자유치설명회'를 4일 서울 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합동 설명회에는 총 17개 사업지구(25㎢)의 세부 사업계획이 소개될 예정이다.

전남지역에서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신안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등이 포함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 나오미(廣瀬直己) 도쿄전력 사장 등 전·현직 간부 32명과 도쿄전력 법인에 대한 고발장을 후쿠시마현 경찰청에 제출했다.

무토 단장 등은 도쿄전력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에 배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대책을 취하지 않아 매일 300~400t의 오염수가 유출되도록 했다고 고발 이유를 적시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원자력재해대책본부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유출 사태에 대한 종합대응방침을 확정했다.

종합 대책에는 오염수 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 각료 회의를 구성하고, 그 아래 차관보급을 책임자로 하는 범정부 조직을 만드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소개했

다. 또 일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참사관급 정부 당국자를 상주시킬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춘 뒤 인위적으로 바다로 방류하는 방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다나카 순이치(田中俊一) 위원장은 2일 도쿄에서 진행된 외신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원자력 학회 사고조사 위원회(위원장 다나카 사토루 도쿄대 교수)도 2일 보고서 최종안에 삼중수소를 허락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금당공인중개사

매매, 교환, 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 충장로5가 버스도로접 대지777m²(235) 공시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매도 9억6천
- 북구 유통 상업지역 대지411m²(124) 경평327m²(99) 공시지가 2억8200 매도 3억 김영희 74-6
- 함평군 영업 절되는 여관 포획에 접해있는 주거지역 504평, 땅에는 생활주택 등 적합 대출4억 매도10억5천
- 북구 북동 고용센터 부근 상업지역 64평 원룸등 적합 매도 1억6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705m²(213) 월류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12억 가능 은행3억 매도7억8천43
- 매도, 목포대학부근 생활주택 84개 허가난 땅480평 은행2억8천 투자 가치좋을 5억6천만원 청계면 도립리
- 매도, 신안군 지도읍 비단가로 보이는 별장용APT 38평 25세대, 54평 5세대. 대출은 8천에 1억 가능.
- 매도, 쌍촌동 험밀턴 시설의 생활주택 24㎡(8평형) 10채 대보증금500에 월40 임대가능 세대당 대출은 3500 매도는 호당 6200만원 실투자 2억2천에 월400선 수입예상 임대생활에 적합 6억2천 쌍촌동 1004-10
- 임대, 신창동 보길대학부근 대로변 주택전시관 1층 167m²(50) 보증금 5천 월2백선 조정가능 주차장 넓음
- 임대, 쌍촌동 (구)장군관사에 신축중인 호텔급시설의 생활주택37m²(11평) 모든시설완비되어 있음 보증금500에 월40만원. 9월말경 첫입주. 운천역에서 7분 거리
- 임대, 쌍촌동 기도건설의 주택전시관 70평 다양한 용도 사용가능. 40평과 30평으로 분할 임대도 가능. 보증금5000에 월200 선. 조정 가능함.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당부동산은 가도건설 전속중개사무소입니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m² 건평307m² 감정가14억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속박사시설 대지1760m² 건평 2821m²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m² 건평 2309m²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763m² 건평137m² 감정가1억8천만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m² 건평161m²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m² 건평297m²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 및 창고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m² 건물303m²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